

[이현군의 옛지도 여행] 마이산으로 유명한 전북 진안군, 옛 용담현도 품고 있네

이현군 역사지리학자

입력 : 2016.07.30 05:00



▲ 진안현지도(鎭安縣地圖, 규10508), 조선 후기 지방지도,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옛지도 읽기-전라도 진안현>

<옛지도 읽기-전라도 용담현>



현재의 전라북도 진안군은 조선시대 진안현과 용담현이 합쳐진 지역이다. 먼저 진안현의 중심부부터 가기로 한다. 진안현 읍치는 진안을 군상리와 군하리 일대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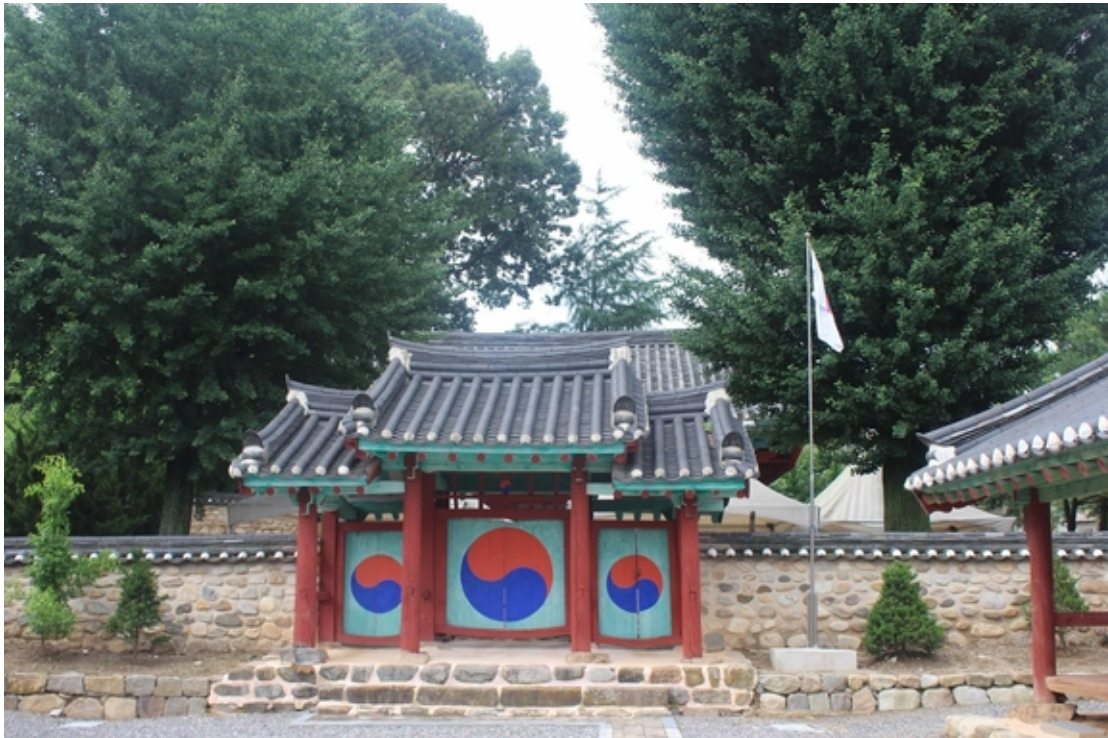
옛지도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읍치 중심부에 그려진 아사(衙舍)와 동헌(東軒)이 있던 곳에 현재 진안군청이 들어서 있다. 옛 관아 건물은 찾을 수 없었지만 군청 앞 오래된 느티나무와 군청 앞의 길이 이곳이 진안현 읍치였음을 알려주었다.

느티나무는 1982년에 보호수로 지정되었는데 수령이 318년으로 되어 있었다. 진안군청 현관에 보이는 진안군의 브랜드슬로건은 My JINAN이다. 마이진안의 M은 마이산 두 봉우리를 캐릭터처럼 만들었다.



옛지도에 동헌 왼쪽에 객사(客舍)가 그려져 있다. 지금은 군청 왼쪽에 진안초등학교가 들어서 있다. 객사터에 초등학교가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1911년에 세워진 학교다. 조선시대 군현 중심부에 세워진 학교들은 대개 1910년을 전후로 세워진다. 조선이 망했으니 고을 수령이 국왕에게 충성서약을 하던 객사가 더 이상 필요없게 되고, 그 자리에 일본이 세운 국민학교, 공립보통학교가 들어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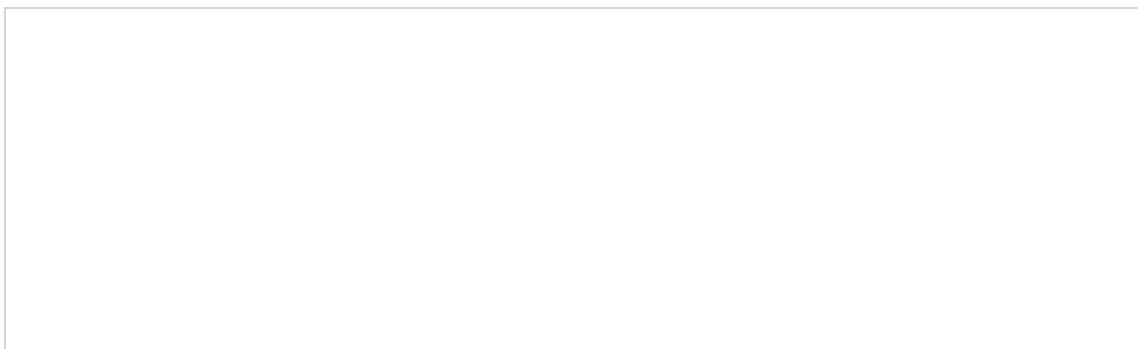
▲ 진안향교

객사와 동헌은 없어지지만 향교는 대부분의 고을에 남아 있다. 진안군청을 기준으로 초등학교의 반대편, 오른쪽에 진안향교가 세워져 있다. 초등학교, 군청, 향교 앞으로 연결되는 길은 옛지도에 그려진 길이다.

향교 안내문에는 조선 태종대에 세운 향교는 임진왜란 때 불타고 선조 때 다시 세웠다가 인조대에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고 되어 있다. 옛지도와 현재 홍살문의 위치를 비교해보면 한번 더 옮긴 것 같다. 골목 안에 있는 작은 향교다.

교육기관이자 공자의 사당이기도 한 향교에서는 연도를 표시할 때 서기(西紀)를 사용하지 않고 공기(孔紀)로 계산한다. 봄부터 걸려 있던 석전대제(釋奠大祭)를 알리는 현수막을 통해 서기 2016년이 공기(孔紀) 2567년임을 알았다.

옛 길, 옛 관아터, 향교를 본 후에 옛 길 아래쪽 진안시장, 버스터미널 주변을 돌아보고 순대국을 먹었다. 진안의 특산품이 인삼이다. 식당에서 진안마이산 막걸리를 보았는데 진안의 '진'을 인삼처럼 그려 놓았다.





▲ 죽도

이제 읍내를 벗어난다. 지리 전공자들이 답사지로 가는 곳이 죽도이다. 옛지도에도 하천 옆에 죽도(竹島)를 그려놓았다. 서울의 독섬이 섬이 아닌데 섬이라 불리는 것처럼 죽도도 대량천(구량천)과 금강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북쪽의 좁은 목으로 상전면 수동리와 연결되기에 지형적으로 섬이 아니었다. 전북대 지리교육과 조성욱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1970년대에 연결지점을 폭파하여 지금은 섬이 되었다고 한다.

죽도는 기축옥사와 관련된 장소이기도하다. 1589년 기축년에 정여립이 역모를 꾀하였다고 동인 계열의 인물들이 처형을 당한다. 죽도 옆, 옛지도에는 천방산, 현재는 천반산으로 불리는 산에서 정여립이 군사를 조련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죽도 근처는 마을 주민들이 물고기도 잡으며 노는 곳이지만 가는 길도 좁고 하천으로 둘러싸인 곳이니 비가 오는 날에는 답사하지 마시라.



▲ 섬진강 발원지 데미샘

죽도 주변의 물은 금강으로 유입된다. 진안현 옛지도에서 마이산 오른쪽의 물은 금강으로 들어가고 마이산 왼쪽의 물은 섬진강으로 들어간다. 서쪽을 위로 하여 그린 지도라서 그렇게 보인다.

진안군에서 마이산 북쪽과 진안군청 주변 하천은 금강으로, 마이산 남쪽의 물은 섬진강으로 들어간다. 마이산은 금남호 남정맥에 속하는데 이 산줄기가 금강과 섬진강을 나누는 역할을 한다. 금강의 발원지는 장수군의 뜯봉샘이 되고 진안군에는 섬진강의 발원지가 있다.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팔공산 북쪽 기슭의 상추막이골에 있는 데미샘을 섬진강 발원지로 간주하고 있다. 데미산 자연휴양림 주차장에 내리면 팔선정이라 이름붙인 정자가 보이고 그 옆의 계곡을 따라 약 1.2km 정도 걸어 올라가면 나오는 샘이다. 안내문을 보면 ‘데미’는 이 지역에서 봉우리를 뜻하는 ‘더미’에서 따왔고, 주민들이 샘 동쪽에 솟은 작은 봉우리를 ‘천상데미’라고 불렀다고 한다.

더운 여름날 땀 흘리며 올라가 모았다. 발원지라고 하면 신비한 느낌이 있었을 듯하지만, 그냥 산기슭에 있는 아주 작은 샘이다. 데미샘에서 시작해서 212.3km를 흘러 남해의 광양만에서 바다에 들어간다고 상상하시라.



▲ 진안 메타세콰이어길

데미샘 근처에서는 예쁜 사진이 나오지 않는다. 담양이 유명하지만 진안군에도 메타세콰이어길이 있다. 진안군 부귀면에 있다. 26번국도에서 빠져 나와 완주군과 통하는 모래재터널 가는 길에 조성되어 있다. 다들 사진은 이곳에서 찍는다.



▲ **응답**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현재의 진안군은 진안현과 용담현이 합쳐진 곳이다. 옛 용담현에 건설된 금강 상류댐이 용담댐이다. 댐을 건설하면 땅에 그려진 삶의 역사도 수몰된다. 진안현의 읍치는 용담면 옥거리 일대였다. 용담호 속에 용담현의

내력이 잠겨있다.



▲ 용담면사무소 앞에 옮겨 놓은 구름다리

정천면 모정리 산 136번지에 망향의 동산이 조성되어 있다. 옛 관아 앞에 있었던 비석들은 이곳으로 옮겨져 있다. 인공 호를 내려다 보는 풍경은 좋지만 대대로 살아 온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게 된다. 향교가 있던 마을 앞에 있었던 구름다리의 돌은 용담면사무소 앞에 옮겨져 있었다. 용담면사무소 근처에 있는 송풍초등학교와 용담중학교에서 서성이다 발길을 돌렸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 섬바위

진안군 관광안내도에 섬바위가 그려져 있다. 조선후기 지승(地乘), 용담현 지도에 도암(島岩)으로 그려진 곳이다. '어둔이'라고도 하는 곳인데 강 안에 바위가 마치 섬처럼 서 있다. 이 앞은 오토캠핑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유원지이다. 답사 갔을 때는 여름을 맞아 캠핑장을 정비하기 위해 풀을 깎고 있었다.



▲ 용담향교

옛 흔적을 조금이라도 상상하기 위해 용담향교를 찾아갔다. 옛지도와 달리 향교는 용담면이 아니라 동향면 능금리에 있었다. 용담면 옥거리에 있었는데 수몰지구가 되면서 향교를 옮겨 세운 것이다. 옛 고을의 중심부가 아니라 새로 지은 향교에서 별다른 감흥을 느끼기는 어려웠다. 옛 군현은 다른 군에 병합되었고 옛 고을은 물에 잠겼다. 씁쓸함을 느끼며 답사를 마쳤다.

☞ 프린트 ☒ 달기

Copyright (c) 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chosun.com for more information.